

YOUR PERSONAL STYLE GUIDE

# ELLE

HEDONISME ANNO NU  
KEIHARD FEESTEN  
HEEFT ZIN

DECEMBER 2018  
IT FR ES GR DE € 9,95  
ADVIESPRIJS  
€ 5,99

HET  
GROTE  
FUIFNUMMER

ZO GEEF JE EEN FEEST

SWINGENDE LOOKS

DE BESTE CADE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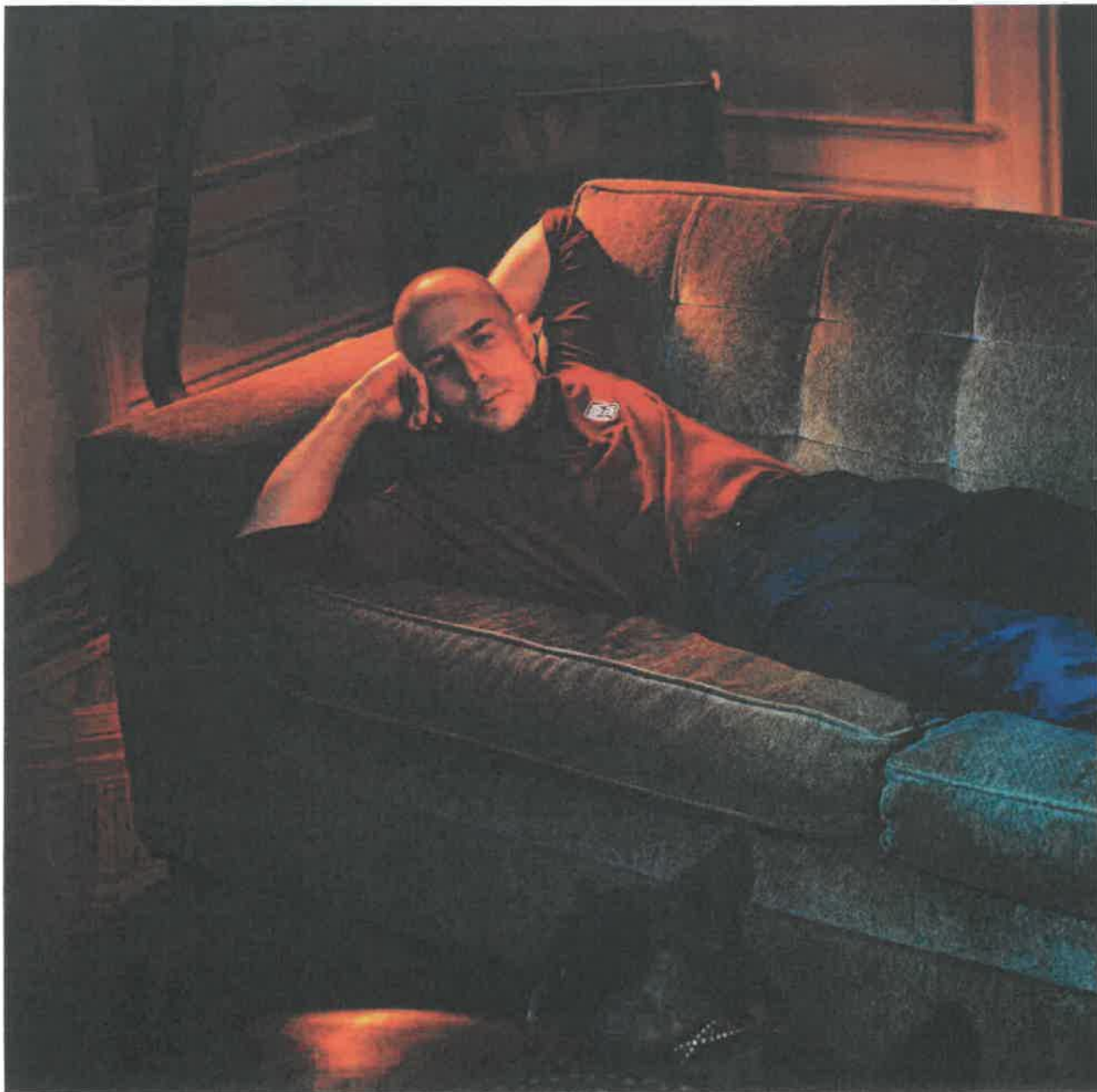
# dance

HOLLAND'S NEXT TOP MODEL  
SOUFYAN HEEFT DE MOVES

WINNAAR  
MERCUR  
ART DIRECTION  
VAN HET JAAR



The Next Look



Maglia e pants: tutto Prada; calze, Pantharella; scarpe, Church's. Grooming, Joanna Pursel @ The Wall group

«Io sono attratto dai personaggi complessi, così finisce che a Hollywood mi considerano quello adatto a fare i tipi strani, un po' nella stessa categoria di Christopher Walken»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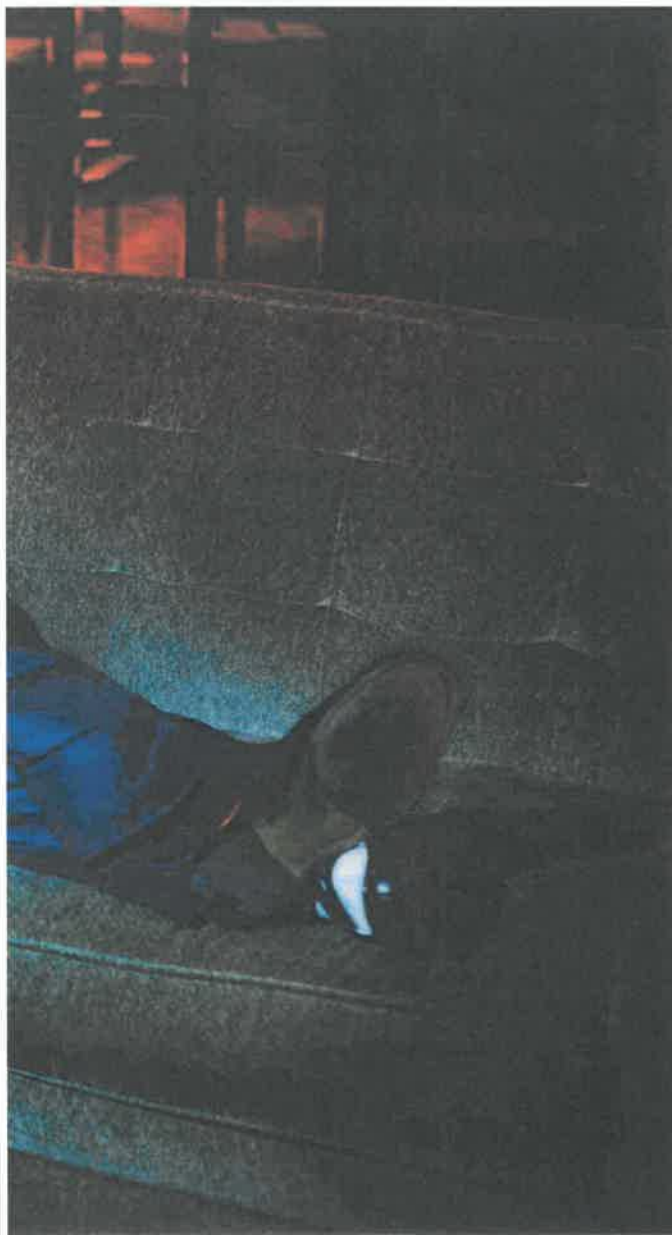
Esquire - N°2

Ritaglio stampa ad uso esclusivo del destinatario, non riproducibile.

Codice abbonamento: 044119

PRADA: principali

Sam Rockwell



○ QUALCHE SETTIMANA FA, in una casa di Brooklyn, succedevano tre cose strane. La prima era il cane: di nome Sadie, era una grande femmina di husky e si trovava legata alla gamba di un armadietto perché (come è stato spiegato in seguito) si era da poco disonorata su un tappeto. Il secondo era il posto in sé: Ditmas Park, un quartiere completamente diverso da New York, come se appartenesse a un'altra città, tutta viali alberati e verande vittoriane. Infine, ed era la cosa più strana, c'era Sam Rockwell in piedi sulle scale, avvolto in un impermeabile.

SPESSO CONFINATO IN RUOLI, come ha detto una volta, di "razzista e bifolco", l'attore che ora ha 50 anni conserva una persistente reputazione di eccentricità, tanto più inspiegabile quanto invece è simpatico e (quasi) normale nella conversazione. Originario della California del Nord, Rockwell ha trovato la sua strada nella recitazione dopo essersi rivelato inadatto a quasi qualsiasi altra cosa, avere abbandonato la scuola superiore ed essersi trasferito a Manhattan. I direttori del casting puntarono sul suo fascino improbabile e presto lo scritturarono per ruoli secondari in una serie di film importanti, ma fu solo nel 2002, con *Confessioni di una mente pericolosa*, l'esordio alla regia di George Clooney, che il pubblico lo notò davvero. Da allora, Rockwell si è trasformato in una miriade di personaggi seducenti ma spigolosi in quasi tutti i generi di film, dalla satira sociale di *Soffocare* (2008) alla fanfascienza di *Moon* (2009) al dramma di *Tre manifesti a Ebbing, Missouri* (2017), che gli è valso l'Oscar come miglior attore non protagonista per la sua interpretazione di un poliziotto (ovviamente) intollerante.

L'INTERVISTA COMINCIA con Rockwell, del tutto a suo agio nel suo insolito quartiere di Brooklyn, che richiama Sadie e sprofonda nel divano. Dato il numero di svolte impreviste della sua carriera, chiedergli cosa farà l'anno prossimo richiede più di un piccolo sforzo di immaginazione. Ma Rockwell è uno che sta al gioco, e accetta di parlare di quello che il futuro potrebbe avere in serbo per lui e – forse – per Hollywood.

Molti dei ruoli più eccentrici che hai avuto in passato erano di fantasia, ma ultimamente stai interpretando persone realmente esistenti.

SAM ROCKWELL Sì! Sono George W. Bush nel film *Vice-L'uomo nell'ombra*, sull'ex numero due della Casa Bianca Dick Cheney, e in un altro interpreto il regista Bob Fosse. Un matto che non faceva che bere, fumare e prendere dexedrina. Stiamo girando adesso e nel film devo portare una parrucca,

➔

131

Gennaio 2019

Ritaglio stampa ad uso esclusivo del destinatario, non riproducibile.

Codice abbonamento: 044119





# PRADA

## GQ STYLE 2

LE GRANDI STORIE FOTOGRAFICHE DI GQ



Da sinistra: giubbotto, felpa e pantaloni **DSQUARED2**, scarpe **CHURCH & DWIGHT**; giubbotto, tank-top, pantaloni e stivali **GIVENCHY**; abito **SARTORIA LATORRE**, camicia, cravatta e cintura **CORNELIANI**, scarpe **GEORX**; giacca, camicia, pantaloni, cintura e stivali **SAINT LAURENT BY ANTHONY VACCARELLO**

Il senso del ritmo è qualcosa di innato. La GQ Story di questo mese scrive le note più armoniche della prossima stagione

Foto di VAN MOSSEVELDE\* N

GQITALIA.IT

GENNAIO 2019 / 177

Ritaglio stampa ad uso esclusivo del destinatario, non riproducibile.

Codice abbonamento: 044119



CINA - MODERN WEEKLY Suppl. STYLE (Lifestyle) - CHURCH'S - 01.12.18



CINA - MODERN WEEKLY Suppl. STYLE (Lifestyle) - CHURCH'S - 01.12.18



CONTRIBUTING EDITOR 이승환

## 오매불망

드디어 처치스가 국내 첫 공식 매장을 오픈했다.

십 년쯤 된 듯하다. 당시 나는 <아레나>에 첫 입사한 인턴 에디터였고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던 나에게, 편집장은 이십여 명의 전화번호를 돌리달았다. 그 사람들에게 전화통 걸어 코멘트를 피우려는 것 기억하건데, 당시 칼럼 제로이 '남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물건'이었다. 그랬을 거다. 그때 한 구두 수집가에게서 '처치스'란 구두 브랜드에 대해 처음 들었다. 그가 말하길, 처치스는 최상의 가죽으로 최고의 구두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했다. 정확히 기억나는 않지만, 내구성이 좋고 훌륭한 브랜드 해리타를 갖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던 것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나는 어렸고, 구두보다는 운동화가 훨씬 더 좋았으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와 구두의 매력이 뻗 수 없는 관계를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처치스를 아주 잘 알고 있다. '1973년 토머스 처치(Tomas Church)가 영국에서 만들었고 '영국 구두의 자존심'이라 불린다는 것과 피오렌티나의 소가죽으로 7~8주에 걸쳐 한 켤레의 구두를 완성한다는 것, 영국 왕실의 남자들이 윈스턴 처칠, 토니 블레어 총리가 즐겨 신었다는 것과 클래식 구두의 유행을 이끌었다는 것, 그리고 1999년 프리다 그로에 인수되었다는 것까지 쓸데없는 지식까지 줄줄 꿰고 있을 정도다. 왜? 좋은 구두가 신사를 만든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자의 완성이 구두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본 처치스는 만들새만 편안한 착화감이 우수한 브랜드다. 사실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구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반면 처치스의 구두는, 신으면 신을수록 만족감을 준다.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는 가격대지만, 제값을 톡톡히 한다고나 할까. 그래서 나는 처치스에게 일종의 '애증'을 느끼고 있던 차였다. 판매해 마지않는 구두 브랜드이지만, 한국에 매장을 내지 않아 단단히 불이 나 있던 것. 물어 가자 먹기로 처치스를 판매하는 편집매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심지어 편집매장도 몇 군데 없었다.) 하지만 편집매장의 특성상 다양한 라인업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늘 아쉬웠다. 더 의미했던 건, 나 말고도 국내에 처치스의 팬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주 반기는 소식이 들려왔다. 드디어 처치스가 한국에 공식 매장을 오픈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됐다. 지난 11월 10일과 16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층과 롯데백화점 본점 5층에 오매불망 가다리던 처치스가 동지들 틈 것. 특히 11월 16일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盛大한 오픈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눈치챘겠지만 에디터 역시 발 빠르게 다녀왔다. 그곳에서 처치스의 다양한 스타디셀러를 모두 만나뵈운은 물론, 모자와 가방, 벨트, 타이, 슈 캐어 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액세서리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에디터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2018년 새롭게 선보인 '세인트 제임스 레더 굿 컬렉션(St. James Leather Good Collection)'의 브리프케이스와 여행용 액세서리였는데 처치스 고유의 엠보 로고로 마무리해 클래식한 제품에 모던한 매력을 더했다. 유럽 현지와 큰 차이 없는 가격대도 에디터의 발길을 붙들며 맨 요소.

이날 오픈 행사에는 배우 이서진과 배우 이성운, 가수 헨리기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20대, 30대, 40대의 남자 연예인이 참석해 시선을 끌었다. '그래, 남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구두니까 연령대를 가를 수는 없지.' 우리 남자들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문의 02-3479-1140(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772-3898(롯데백화점 본점)

### '처치스' 하면 떠오르는 구두 셋.



#### 전설

처치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두 중 하나. 스트레이트 톱의 슈즈로 너무 동글거나 너무 날렵하지 않은 단정함 스타일이 매력적이다.



#### 새년

하나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구두로 동그스름한 리스트가 특징이다. 클래식한 캐주얼 의상에 모두 잘 어울려 특히 사랑받는 모델이다.



#### 베루드

많은 사람이 처치스 하면 왕립 슈즈부터 떠올린다. 그중에서도 베루드는 가장 전통적인 디자인에 충실한 왕립 슈즈로 새년과 함께 처치스의 베스트셀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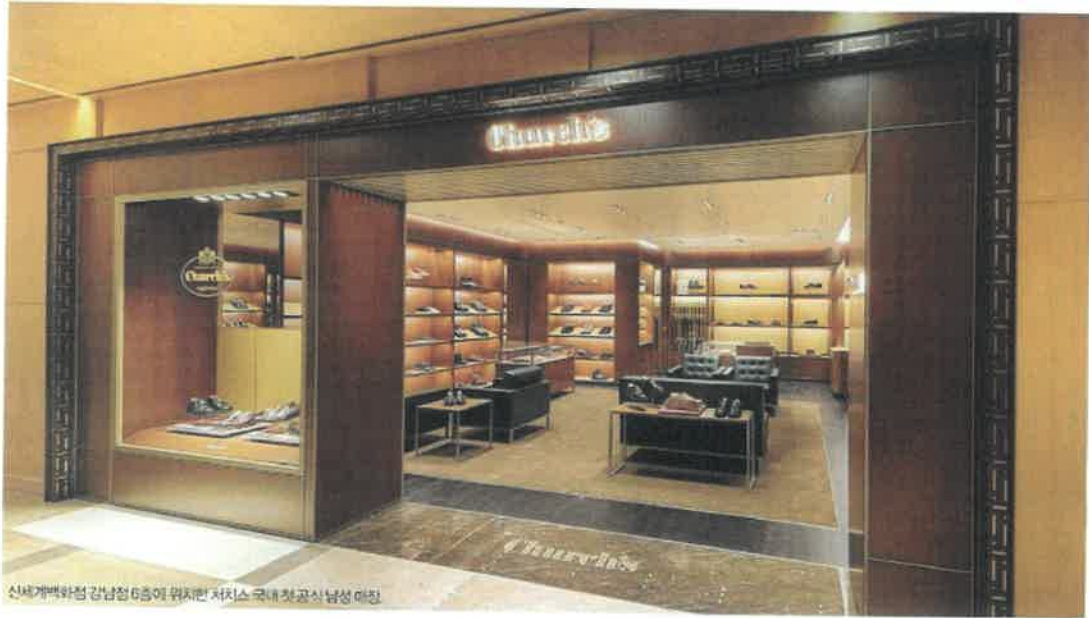


MIX & MATCH

수트의 체크무늬 그리고 스포티즘, 서로 다른 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개념

PHOTOGRAPHY BY PARK JUNGMIN  
DIRECTING BY PARK MANHYUN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층에 위치한 처치스 국내 첫 공식 남성 매장

# The New Monument

14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인정신을 담은 수제화를 선보여온 처치스가 국내 첫 공식 매장을 오픈했다.

에디터 빅스현angelbox@noblesse.com

오랜 시간 견고한 수제화를 선보인 처치스가 마침내 신세  
제백화점 강남점과 롯데백화점 본점에 각각 국내 첫 공  
식 남성 매장을 오픈한다. 1873년, 토머스 처치(Thomas  
Church)가 설립한 처치스는 유럽에서 이미 꾸준히 사랑  
받아온 슈즈 브랜드다. 중세시대부터 각종 레더 제품과  
슈즈의 중심지라 불리는 영국 노샘프턴(Northampton)  
에 자리해 그의 세 아들인 맵시, 윌리엄, 토머스  
주니어 처치스에 의해 광범 형식의 정교한 제작  
방식을 고수해왔다. 1921년 런던에 최초로 매  
장을 연 이래 미국, 캐나다, 남미  
등 여러 국가를 뒀다하며 홍콩,  
일본, 싱가포르, 상하이, 도쿄까지 아  
시아 심장을 미친 처치스의  
수츠는 1985년 엘리자베  
스 2세 여왕으로부터 국제적 브  
랜드리플 인정받는 수훈 여왕상  
(Queen's Award for Export)을

1 올해 새롭게 선보인 세인트 제임스  
컬렉션의 레더 키홀더. 2 클래식한  
무드가 느껴지는 세인트 제임스  
컬렉션의 레더 브리프케이스. 3 폴  
브로그 디테일에 웅장 디자인으로  
완성된 비우드 슈즈

수상했다. 1989년에는 프라다 그루피 손잡고 현대적 감  
각을 갖춘 클래식 비스를 출시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새  
대를 아우르는 타일리스한 디자인으로 남성 수제화를 대  
표하는 세계적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신세제백화점 강남  
점과 롯데백화점 본점의 국내 첫 공식 매장에선 브랜  
드의 아이코닉한 남성 슈즈 라인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  
다. 그중 베스트셀러 아이맥인 점선과 새틴 슈즈를 비롯  
해 폴 브로그 원탑 디테일이 멋스러운 비우드 슈즈, 세인트  
제임스 컬렉션의 브리프케이스와 액세서리 등 내부 공  
간에는 처치스의 유서 깊은 장인정신을 느끼게 하는 세  
종이 많다. 여기에 월넛 소재의 바닥에 놓인 오크 컬러 가  
구, 진한 초콜릿 컬러 리그의 디조류 이루는 신명난 2인  
컬러 소파 등 클래식하면서 아늑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새 매장 곳곳의 인테리어가 브랜드 특유의 기품  
있는 분위기를 빚어낼 수 있도록 기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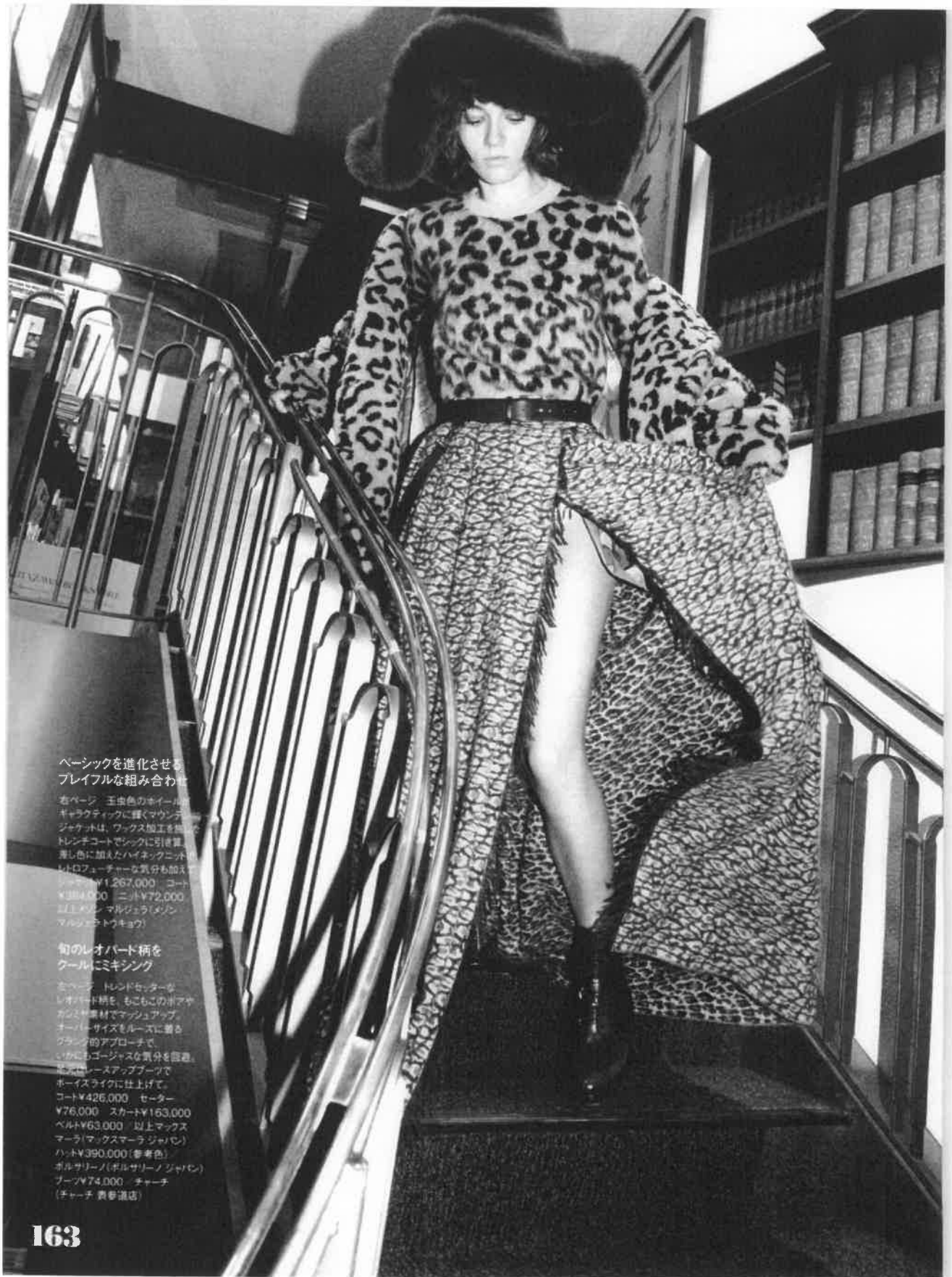
문의 02-3278-5331



COREA - NOBLESSE - CHURCH'S - 01.12.18



**DIESE SEITE:** Doppelreinger Mantel von **UN JOUR AILLEURS**, um 350 €. Walljacke von **BARSH**, um 280 €. Hemd darunter von **BMM**, um 230 €. Weiße Hose von **RAEY**, über [marchefashion.com](http://marchefashion.com), um 260 €. Mokassins: Church's  
**RECHTE SEITE:** Mantel mit Leopardmuster von **YVES SALOMON**, um 3000 €. Rollkragenpullover von **MARC CAIN**, um 200 €. Hose von **SANDRO**, um 200 €. Gürtel: Maison Martin Margiela. Tasche: Tara jarmor. Schuhe: Dior



ベーシックを進化させる  
プレイフルな組み合わせ

右ページ 玉虫色のキール  
キャラクターに輝くマウン  
ジャケットは、ワックス加工を施した  
トレンチコートでシックに引き算。  
差し色に加入したハイネックニット  
は、ロフチャーな気分も加えて  
コート ¥1,267,000 コート  
¥384,000 ニット ¥72,000  
以上、マルシェラ(メゾン  
マルジェラトウキョウ)

旬のレオパード柄を  
クールにミキシング

全ページ トロンドセーターな  
レオパード柄も、もこもこのボアや  
ホントは素材でマッシュアップ。  
オーバーサイズをルースに巻く  
クラシック的アプローチで、  
いかにもゴージャスな気分を醸成。  
足元はレースアップブーツで  
ボイスライクに仕上げ、セーター  
コート ¥426,000 セーター  
¥76,000 スカート ¥163,000  
ベルト ¥63,000 以上 マックス  
マラー(マックスマラー ジャパン)  
ハット ¥390,000(参考色)  
ホルサリーノ(ホルサリーノ ジャパン)  
ブーツ ¥74,000 チャーチ  
(チャーチ 表参道店)





ALL WE WANT



正統な足元。

おめでたい日にはチャーチのローファー (NINA) のパテントがめいやかなと思っただけで、いざ履いたら正統な豪華こそが相応しかったよ。  
¥44,000(チャーチ | チャーチ 表参店 ☎03-3486-1801) / ローファーに合わせるのはフランス・アルザス地方名産のウールソックス。レディ  
用ソックスは正統なカラーで、グレー ¥2,400、赤と黒+リブ編み 各¥2,500(以上ホテル | イットディビジョン [www.itdiv.co.jp](http://www.itdiv.co.jp))

091

GIAPPONE - GINZA - CHURCH'S - 01.01.19



**アッパーの質感も絵になる。上質な“チャッカ”**

チャーチの定番コレクションの一つ、クレープソールが特徴的なチャッカブーツ[ライダー]に、ネイビー色が新鮮なモデルがラインアップ。アッパーは上質なスエードレザーを使用し、美しい佇まいを表現。オールアラウンドグッドイヤーウェルト製法を採用。シューズ¥64,800。チャーチ(チャーチ 表参道店 ☎03-3486-1801)

pen with New Attitude | 138

GIAPPONE - PEN - CHURCH'S - 01.12.18







ここがチャーチの工場だ

工場は約300人、3代目から継承する家族も多いと伝へ、1879年の創業日は前記の通りである。だが、1987年にこちらに移転してきている。

KYLE

JACK

THOMAS

## チャーチの若きシューメーカーたち。

ロンドンから北北西に進路をとって約100km。ノーザンプトンという街で、  
 〈チャーチ〉の靴はズーっと作られてきた。なんと145年！  
 歴史は古く、若者がいきいき働く。かくして職人技は今に繋がる。



### ノーザンプトンってどんな街？

北中流（西）を流す河川、自らが石造りの建物が多い街。異国情緒を醸成する多様な人種が、歴史を刻み出して、その一角には職人の工房も。また、その一角には職人の工房も。また、その一角には職人の工房も。また、その一角には職人の工房も。

Photo: Royal Society, coordination: Yuna Hasegawa, text: Shoichi Taguchi

Craftsmanship! Church's Young Shoemakers.







FASHION

From left: Coat by **J JS Lee**,  
£1,100, [jjslee.com](http://jjslee.com).  
Suit by **Gieves & Hawkes**,  
£995, [gievesandhawkes.co.uk](http://gievesandhawkes.co.uk). Shirt by **Hugo Boss**,  
£99, [hugoboss.com](http://hugoboss.com). Tie by  
**Anderson & Sheppard**,  
£130, [anderson-sheppard.co.uk](http://anderson-sheppard.co.uk). Shoes by **Church's**,  
£395, [church-footwear.com](http://church-footwear.com).  
Socks by **Falke**, £15, [falke.com](http://falke.com). Bag by **Dunhill**,  
£2,295, [dunhill.com](http://dunhill.com).  
Jumper, £79. Shirt, £55.  
Both by **Polo Ralph Lauren**,  
[ralphlauren.co.uk](http://ralphlauren.co.uk). Trousers,  
£15. Socks, £7. Both by **Next**,  
[next.co.uk](http://next.co.uk). Shoes by  
**Russell & Bromley**, £50,  
[russellandbromley.co.uk](http://russellandbromley.co.uk).



GRAN BRETAGNA - GQ - CHURCH'S - 01.12.18



GRAN BRETAGNA - VANITY FAIR - CHURCH'S - 01.01.19

“Olivia can be in a completely different mood, and then her whole energy changes in a millisecond.”



knew that about her, I didn't care what she did. If that's happened to you, I think you behave however you want.”

“Everything is very close to the surface with Olivia,” says David Tennant, Colman's co-star on BBC America's *Broadchurch*. “She has incredible access to her emotions ... that's part of what gives her her humanity and her warmth, and what people read in her performances so vividly.”

Colman began her career in comedy on the Channel 4 sitcom *Peep Show* and then BBC's mockumentary series *Twenty Twelve*. She pivoted to drama in 2011 with a devastating performance in Paddy Considine's *Tyrannosaur*, as well as a role opposite Meryl Streep in *The Iron Lady*. In September, she won the best-actress prize for *The Favourite* at the Venice Film Festival. (The last actress who received the award for playing a monarch, Helen Mirren, went on to win an Oscar.)

Colman's reign continues on *The Crown*, where she succeeds Claire Foy as Queen Elizabeth II. Preparation for the role has given Colman, who grew up about three hours northeast of London, a new appreciation for her monarchy: “I sort of thought, I don't know if it's right that we have a monarchy. Now, less the monarchy, more the Queen. I think she is extraordinary.” —JULIE MIL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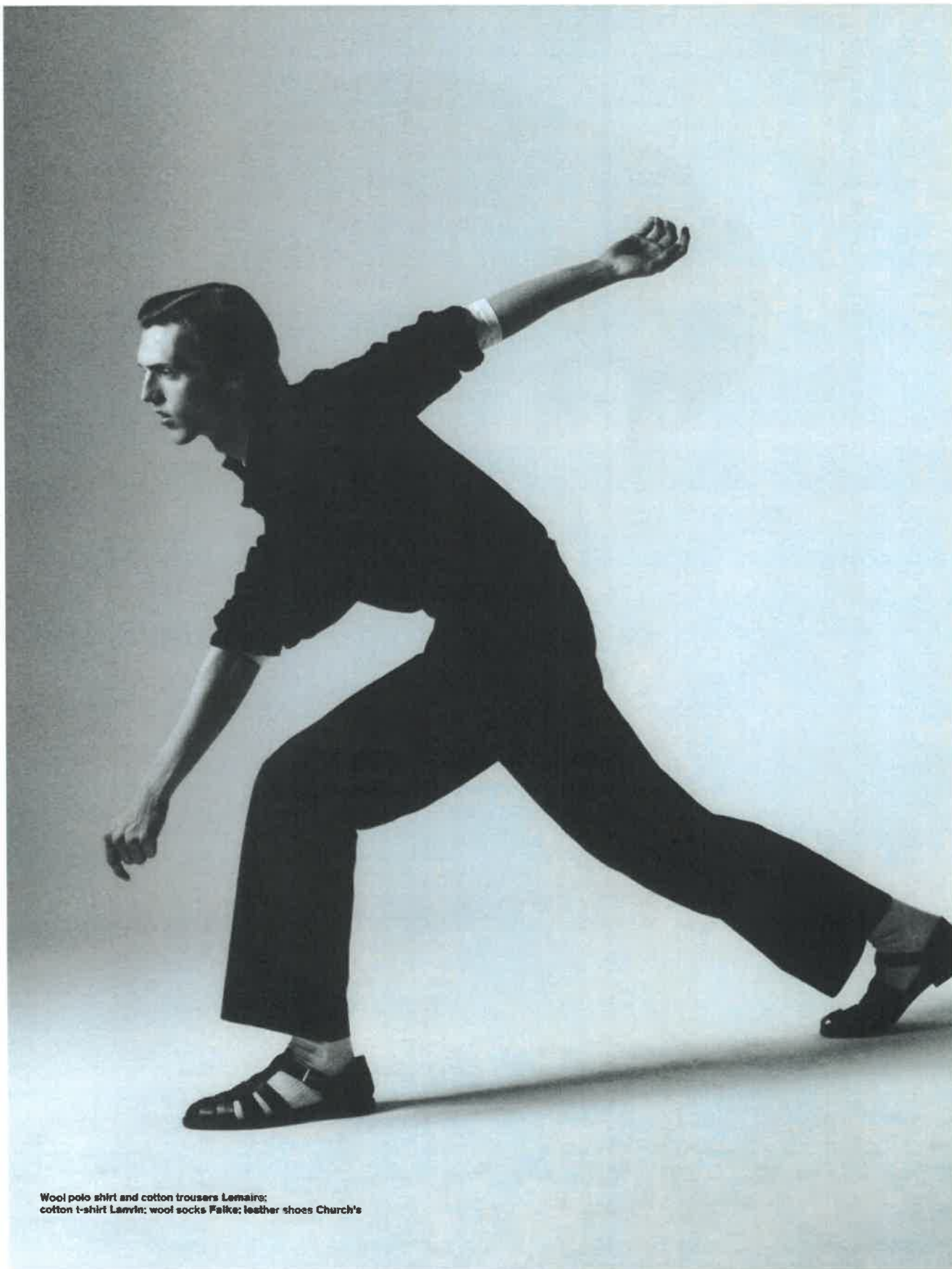
**TITLED ROLES**

Colman, who played Queen Anne in *The Favourite*, has joined the cast of *The Crown* as Queen Elizabeth II.

Left: jacket and shirt by Dries Van Noten; socks by Charvet; shoes by Chanel's. Opposite: coat and shirt by Prada. Throughout: pants by Dries Van Noten; hair products by L'Oréal Paris; makeup by Charlotte Tilbury Beauty; nail enamel by Christian Louboutin.

HAIR BY CHYRIL MARVIN; MAKEUP BY LOTTEN HOLMST; MANICURE BY ADAM BLEE; SET DESIGN BY ALEXANDRA LEVAY; PRODUCED ON LOCATION BY HOLMES PRODUCTION; FOR DETAIL, GO TO VFCOM.CREDITS





Wool polo shirt and cotton trousers Lemairs;  
cotton t-shirt Larvin; wool socks Falke; leather shoes Church's

GRECIA - DAPPER DAN MAGAZINE - CHURCH'S - 01.12.18



ITALIA - MARIE CLAIRE - CHURCH'S - 01.01.19